

“꿈을 설계합니다. 미래를 건설합니다” 동부건설

동부건설은 “좋은 기업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한다”는 창업정신으로 1969년 미륭건설 주식회사로 출발, 건설한국의 큰걸음을 내딛어 국내외 수많은 건설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하였고 동부그룹을 일구어낸 모체가 되었다.

70년대 중반 동부건설을 선두로 국내건설업체들이 중동진출의 황금기를 맞고 있었다. 이때 동부건설은 우수한 선진국의 건설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국내건설업체중 가장 성공한 건설회사중의 하나’라는 중동 신화를 창조한 바 있다.

동부건설의 주요 사업분야는 토목, 건축, 플랜트 및 전기공사는 물론, 주택사업, 조경사업, 주차장 사업, 철구조물공장 및 철근공장 자동화 가공·납품 사업, 건설안전진단업 및 환경시설유지 관리업 등 건설사업 전 분야에 진출해 있다. 제공하는 서비스 또한 사업기획, 설계, 파이낸싱, 시공 및 유지관리등 건설사업 전과정을 일괄할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업계최고의 핵심기술과 가격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취재 | 박병기 기자〉

70년대 중동건설 신화의 선두에 섰던 동부건설은 사우디 아라비아 국방성, 외무성 등의 사업에서 각각 1983년 미 육군 '품질우수시공 표창', 1985년 유럽건축가 협회로부터 '최우수 건축 물상' 을 수상 하는 등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일반사무실 상업용건물은 물론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등 첨단빌딩과 병원·유통시설, 유통·판매 시설, 교육·연구시설, 체육문화시설, APT 공장 및 창고시설 등 풍부한 시공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불어 공법 등 최신 공법을 적용하여 가장 안전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시공관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동부건설의 특화 분야인 병원, 유통시설은 전담인력 운용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고객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시키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동부건설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품질우선주의로 인류에게 보다 편리, 쾌적, 안락한 신 주거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품질경연대회 품

질관리 혁신상 대통령상 수상 및 건설기술상 수상 등이 이를 입증한다.

공사착공 전, 직접 시공할 현장소장이 OJT팀을 구성하여 철저하게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당사의 품질관리지침 및 ISO 9001 규정에 의한 엄정한 품질관리가 이루어 지며 본사의 Q.C.전문가들로 구성된 패트롤팀이 분기별 1회씩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준공시점이 되면 입주자 사전점검은 물론 사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입주자들이 점검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품질관리의 철저함을 더해간다.

주거환경은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변화시킨다는 기치아래 동부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 건설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주 공동 사업 등 주택의 모든 분야에서 품질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세심한 검토를 통해 탄생된다. 동부건설은 자체첨단정보화 기능에 “우리의 혼이 깃든 미래사회의 신주거문화의 창조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라며 동부건설은 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 3번째 복층교량으로 아름다운 도시야경을 연출하는 청담대교

73년 대초댐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국내외 토목 대역사를 성공리에 수행해오고 있는 토목사업부는 동부건설을 단시간내 건설 상위업체로 부상시킨 주인공이다.

75년 국내업계 중동진출의 실직적인 선두주자로써 사우디 아라비아에 입성, ABHA시의 하수도 시설공사, Taraba Dam, Jubail Seawater 수로공사 등 초대형공사를 성공리에 수행, 국내외 건설 업계로부터 기술력과 성실성을 널리 인정 받았다.

현재에도 풍부한 시공 노하우와 우수한 기술인력으로 국내외 도로·교량·터널, 농업토목·댐, 항만·방파제, 철도·지하철·정거장·터널, 하수처리장·정수장·상수도 및 공항·지하저유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전분야에 걸쳐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토목분야의 앞선 기술력을 입증하는 청담대교 공사는 동부가 직접 설계, 시공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2층 교량으로서, 미래사업인 지하공간과 해양개발 등으로 펼쳐갈 미래 사업의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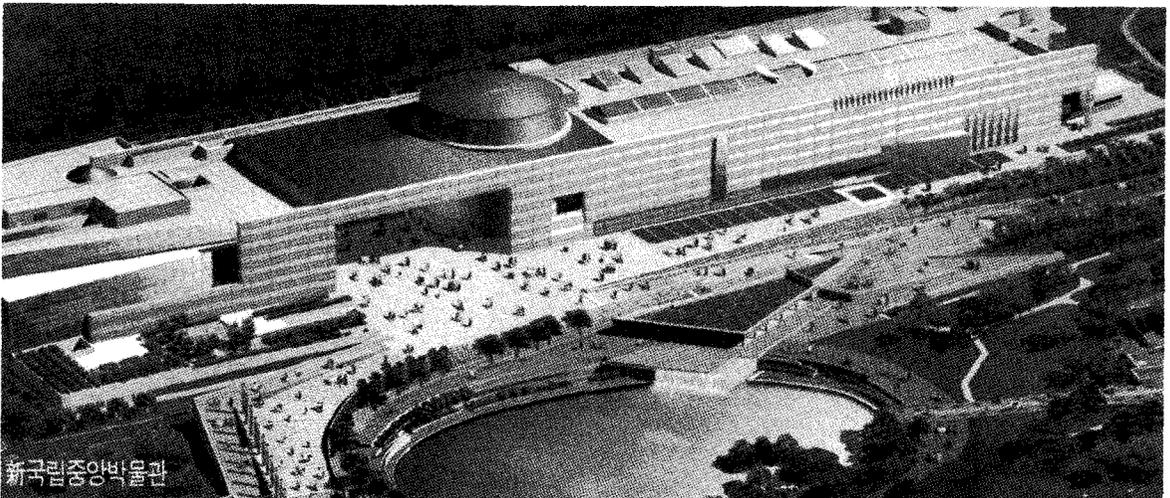
동부건설은 일찍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분야에서 선진 외국기술을 도입, 안양 평촌 및 성남 도시쓰레

기 소각시설을 성공적으로 시공, 여기서 습득한 국내환경에 알맞는 쓰레기 소각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광명 및 안산 도시쓰레기 소각시설을 건설중에 있다.

또한 대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추진된 지역난방 열공급시설인 일산 및 수서지역 지역난방 건설공사를 우수한 기술로써 시공하였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는 일원 열생산시설을 시공중이며 국내 에너지 공급시설에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그리고 국가 기간사업의 기반이 되는 석유 화학 플랜트(동부화학 SM, PS, EPS 및 질산공장, 복합비료공장, 한비 멜라민 공장 등) 및 철강 플랜트(포철 스테인레스 스틸 열연, 냉연 및 연주공장, 광양석회소성공장, 동부산업 동해공장 등), 산업설비(삼양사 전주공장, 코실 구미공장, 동부석고보드공장 등) 등 플랜트 각 부문에서 우수한 건설능력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왔다.

이와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및 해외 사업에도 적극 진출하여 다가오는 21C에는 초일류 건설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新국립중앙박물관

동부센트레빌(Centreville)은 동부건설 아파트의 대표브랜드이다. Center(중심)·Century(세기, 100년)에 Ville(도시)의 합성어로 대한민국 주거 문화의 중심을 표방하는 아파트로서 인테리어·외관·조경·조명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동부건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고품격 아파트이자 100년이 가도 튼튼하도록 시공되는 고품질 아파트를 뜻한다.

동부건설은 단순히 수지를 따진다면 ‘손해’ 본 장사를 했다. 회사측에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단지내 미술 조형물 등 각종 시설물을 무료로 시공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술 조경물 설치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만 해도 2억 5천만원이다. “100억원의 적자를 기록 그만큼 회사 차원에서도 애정을 쏟았다”며 “이는 이윤을 줄여서라도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회사의 정신이기도 하다”라는 동부

건설 관계자의 말로 ‘디자인’이라는 동부 아파트의 키워드를 대변해 준다. 또 아파트가 단순히 주거공간에서 벗어나 해당지역의 랜드마크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동부건설의 의지이다.

2001년에 전교부 주최 ‘한국건축문화대상’ 주거부분을 수상하였고, 지난 3월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상 경관조명부분을 수상하여 동부건설인들은 많은 노력과 의지를 대변해 주었다.

더욱 충실하고 철저하게 미래를 개척하는 동부건설. 2002년 경영방침으로 첫째 일당백의 간부양성, 둘째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재정비, 셋째 철저한공정관리를 통한 원가관리, 넷째 점소별 손익관리를 정하고 전원 참여 고효율 자율경영과 성과 중심주의를 내세웠다. 이러한 경영방침으로 앞으로 동부건설의 발자취가 건설업계의 커다란 족적을 남길것으로 기대된다. ☺

동부아파트 신규 BI



센트레빌아파트의 열린 창으로 보이는 빛나는 태양과 푸른 산, 맑고 깨끗한 호수 등의 자연환경과 창 밖을 바라보며 여유롭고 평화로운 환경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시각화한 동부센트레빌의 새로운 얼굴이다.

동부센트레빌 CENTREVILLE

Center(중심)+Century(세기, 100년)+Ville(도시)의 합성 조어 동부센트레빌은 대한민국 주거문화의 중심을 표방하는 아파트로서 인테리어, 외관, 조경 및 조명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동부건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고품격아파트이자, 100년이 가도 튼튼하도록 시공되는 고품질아파트이다.